

성 삼위일체 석주

2000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200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성 삼위일체 석주는 올로모우츠의 보석입니다.

수 세기 동안 성 삼위일체 석주는 아름답고 다양한 조각 장식, 정교한 디자인과 크기, 영적 메시지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위쪽 광장의 성 삼위일체 석주는 건축과 예술이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룬 하이 바로크 시대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석주 건립을 이끈 주요 인물은 지역 건설 기업가이자 석공인 바츨라프 렌더(Václav Render)였습니다. 그는 모라비아에서 가장 큰 작업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렌더는 합스부르크 군주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디자인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제국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올로모우츠에서 그는 다수의 분수, 성 모리스 성당의 성 폴린 제단, 눈의 성모 교회 정문을 비롯한 많은 기념물을 제작했습니다.





1715년 도시가 여전히 전염병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바츨라프 렌더는 독특한 기념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래쪽 광장에 진행되는 전염병 석주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인접한 위쪽 광장에 더 큰 석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716년 초 그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편지를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시의원들은 그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렌더는 곧 석주 모형, 예산 및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11,000굴덴의 비용이 드는 석주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초기 작품 제작에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 헤라클레스 분수는 계획한 석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금 더 멀리 옮겨져야 했습니다.
- ■석주는 1717년부터 1754년까지 37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렌더는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733년에 6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평생 부인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큰 발자취를 남긴 렌더는 성 모리스 성당에 묻혔습니다.

그는 이 대작을 1층 높이까지 완성했는데 여기에는 예배당과 조각 장식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의 재산은 나머지 건축 작업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렌더의 사후, 도시 중심부에 방치된 거대한 미완성 석조 기념물은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1744년 올로모우츠 의원들은 이 계획을 완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54년 9월 9일 올로모우츠의 주교와 트로이어 추기경은 황실 부부인 마리아 테레사와 로레인의 프란시스 앞에서 이 석주를 봉헌했습니다.

예배당 입구 위에 이를 기념하는 현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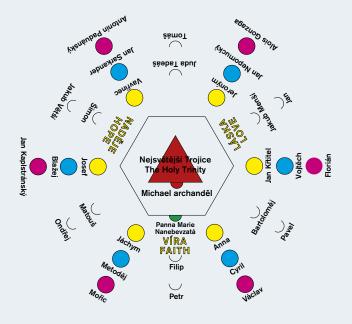
올로모우츠의 장인과 예술가만이 석주 건축과 조각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석주는 올로모우츠 시민의 애국심을 잘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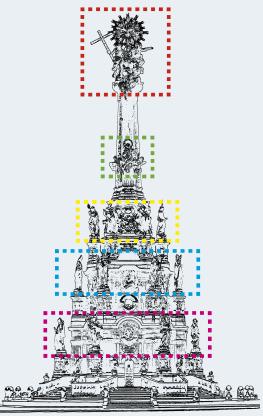
바츨라프 렌더에게 이것은 꿈의 실현이자 기독교 신앙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나요?

■ 1753년 작품이 완성될 무렵 올로모우츠의 화가 인 루드비크 이그나츠 물레르(Ludvík Ignác Müller) 가 석주의 모든 돌 부분과 조각상을 뜨거운 기름 으로 보존 처리하고 대리석처럼 보이도록 흰색으 로 칠했습니다. 따라서 석주의 원래 색상은 지금 과 다릅니다.





32m 높이의 석주에는

- ■18명의 성인 상
- ■12명의 빛의 운반자
- ■12명의 사도 반신상이 모두 3층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석주 중앙에는 성모 승천을 형상화한 금동 조각이 있으며 상단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와 불타는 검을 들고 있는 대천사 미카엘을 형상화한 눈부신 금동 조각이 있습니다. 이 석주는 또한 천구와 지구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2명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하늘로 인도하는 승천 장면을

구조 자체는 6면으로 된 3층의 원추형 각기둥으로 석조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묘사합니다.



기둥의 원형 평면도는 베들레헴의 별 모양을 형성합니다. 성 삼위일체 석주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바로크 양식의 조각 기념물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예배당을 장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로크 양식 조각입니다.



석주 안에는 작은 원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창문의 특수한 구조와 예배당의 음향 효과 덕분에 위쪽 광장의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바닥 타일 아래에는 올로모우츠 지하로 이어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배당은 너무 작아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사제만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밖에 서서 구 멍을 통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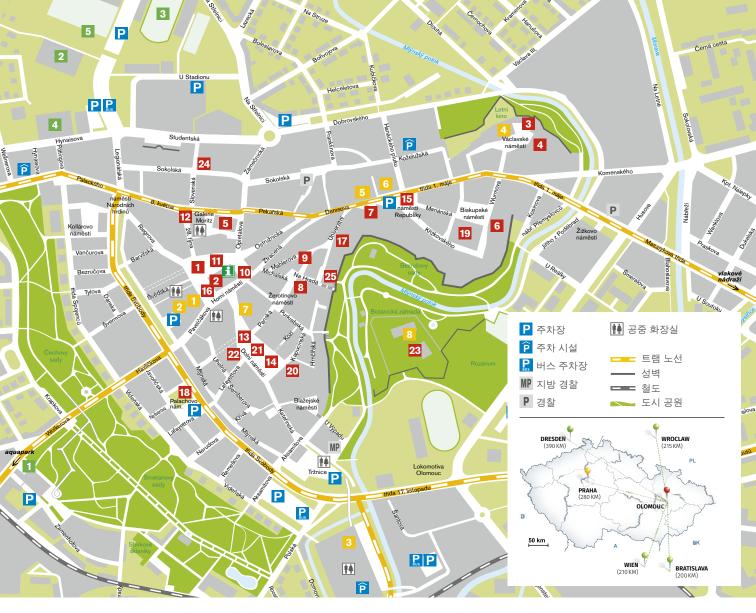
이렇게 성 삼위일체 석주는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기념물 보존 지구에서 바로크 건축의 진정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76m의 탑과 천문 시계가 있는 고딕 르네상스 시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에 대한 첫 언급은 13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기의 원래 천문 시계는 1950년대에 올로모우츠 출신의 카렐 스볼린스키(Karel Svolinský)에 의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현대화되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바로크 양식의 분수가 여러 개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성 삼위일체 석주 근처에 위치합니다. 머큐리, 카이사르, 넵튠, 헤라클레스 및 주피터 분수는 위쪽 광장과 아래쪽 광장에 있습니다. 공화국 광장의 트리톤 분수도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2002년 올로모우츠의 이반 트헤이메르(Ivan Theimer)가 설계한 아리온 분수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중요 기념물

- 1 성 삼위일체 석주
- 2 천문 시계가 있는 시청
- 3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주교 궁전
- 4 성 바츨라프 대성당
- 5 성 모리스 성당
- 6 대주교 궁전
- 0 11 1 2 2
- 7 눈의 성모 교회
- 8 성 미카엘 교회
- 9 성 얀 사르칸데르 교회
- 10 카이사르 분수

- 11 헤라클레스 분수
- 12 머큐리 분수
- 13 넵튠 분수
- 14 주피터 분수
- 15 트리톤 분수
- 16 아리온 분수
- 17 예수회 기숙 학교
- 18 테레지안 문
- 19 테레지안 무기고
- 20 카푸친 교회21 마리아 기둥

- 22 하우스엔쉴드 궁전
- 23 크라운 요새
- 24 도미니카 교회
- 25 빌라 프리마베시

공연/전시

- 1 모라비아 극장
- 2 모라비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 3 나 샨토프체 극장
- 4 대주교 박물관
- 5 현대 미술관

- 6 역사와 지리 박물관
- 7 올로모우츠 시티 갤러리
- 8 스트롱홀드 오브 날리지

여가 시간

- 1 플로라 올로모우츠 전시장
- 2 수영장
- 3 안드루프 축구 경기장
- 4 겨울 경기장
- 5 세마포센터



여름철에는 "가이드와 함께 성 삼위일체 석주 둘러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 삼위일체 석주에 있는 예배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청 아케이드에 있는 정보 센터에서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로모우츠 정보 센터

위쪽 광장, 시청 아케이드 779 11 Olomouc, Czech Republic 전화: (+420) 585 513 385, 392 이메일: infocentrum@olomouc.eu

f Olomouc Tourism

olomouc_city

www.tourism.olomouc.eu

ISBN - 978-80-87602-94-2 2020년 올로모우츠 시에서 발행 1판 사진: 올로모우츠 시 기록 보관소, m-ARK 그래픽 디자인 및 인쇄: m-ARK Marketing a reklama, s.r.o. 내용 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정보에 오류가 일부 있을 수 있 습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이 프로젝트는 문화부에서 후원 합니다.